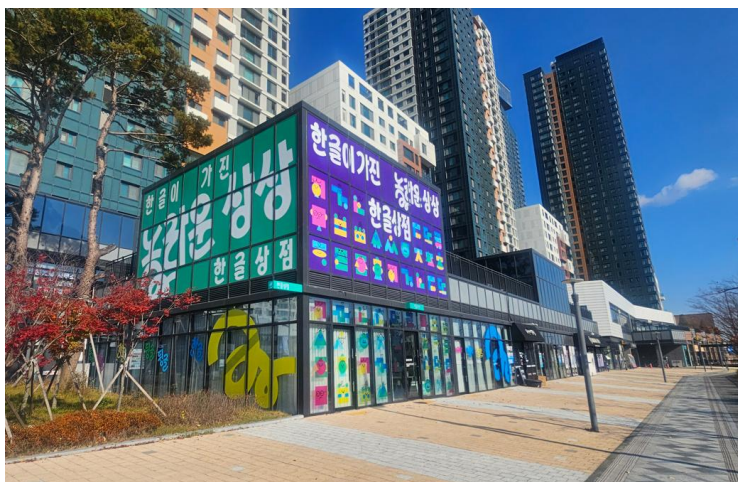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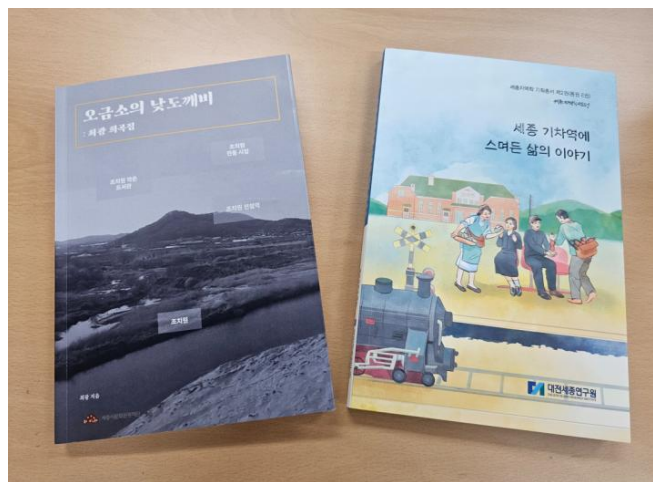




세종지역학센터 소식지

세종 '네' 컷

제6호 (2025년 12월)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2025 세종 메세나 콘서트, 기업의 마음이 예술의 불을 지피다.
-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성과공유회
- (생생현장) 2025 한글문화도시 성과공유회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2025년 세종학포럼을 통해 본 박물관 도시, 세종
- 총서〈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발간
- 총서〈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가 만드는 문화적 물결
-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MOU

(세 번째 컷) 알알이고운 세종

- 한글이가진 마음을 파는 곳, 한글상점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전통의 기록이 오늘을 만나는 순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생생현장)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시시각각’전시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기업 후원으로 예술을 잇다, 2025 세종 메세나 콘서트
- 한글문화도시 한 해의 기록, 성과 공유회
 - (생생현장) 한글문화도시 성과공유회(2025)

세종지역학센터

기업 후원으로 예술을 잇다, 2025 세종 메세나 콘서트

차디찬 겨울 문턱에서 도시가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은, 무대 위 조명이 켜질 때가 아닐까. 지난 11월 27일 저녁,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세종 메세나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세종시메세나협회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함께 준비한 자리로, ‘메세나도시 세종’의 한 해를 음악과 춤, 퍼포먼스로 마무리하는 문화축제의 성격을 띠었다. 무대에는 지역 예술단체 6개 팀, 총 151명의 예술인이 함께 올라 각자의 색을 내면서도 ‘한 도시의 합주’처럼 이어지는 구성을 보여줬다. 특히 전석 무료로 시민에게 열린 무대였다는 점은, 예술이 특정한 날의 이벤트를 넘어 도시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여준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로비와 계단에는 “내년에도 또 오자”는 이야기들이 남았다.

예술을 응원하는 기업과, 예술로 답하는 지역이 서로를 비추는 밤이었다.



한글문화도시 한 해의 기록, 성과 공유회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원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성과공유회를 마련했다. 12월 23일 박연문화관에서 열린 ‘2025 한글문화도시 성과공유회’에는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쌓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조용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환영사와 축사로 문을 연 뒤 공연이 이어지며, 한글문화도시가 ‘사업’이라는 단어를 넘어 시민의 체감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포개졌다. 특히 한글 관련 행사와 사업에 참여한 시민 5명이 무대에 올라 경험과 소회를 전한 대목은, 한 해의 성과를 수치보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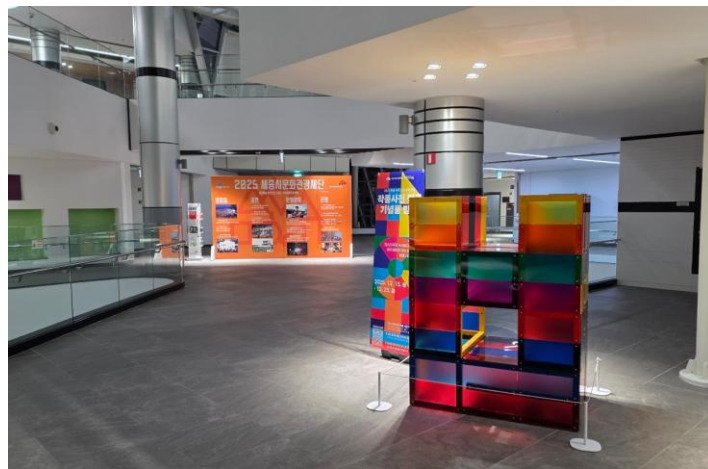
이날 공유회에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의 추진 성과를 정리했다.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개최, 한글상점 조성, 한글런 및 한글 상품 박람회, 한글놀이터 세종관 개소 등은 한글이 문화와 생활, 산업을 잇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시는 2027년 한글 비엔날레를 대비해 전문 전시공간으로서 ‘세종 한글 미술관’ 개관을 내년 핵심 목표로 설정했으며, 지역문화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의 기록을 매듭짓는 자리이면서,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마음을 가지런히 모으는 점검의 시간이 됐다



[생생현장] 한글문화도시 성과공유회(2025)



[생생현장] 한글문화도시 성과공유회(2025)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우리가 나누는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 2025년 세종학포럼
- 총서 vol.3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발간
- 총서 vol.2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가 만드는 문화적 물결
-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MOU

세종지역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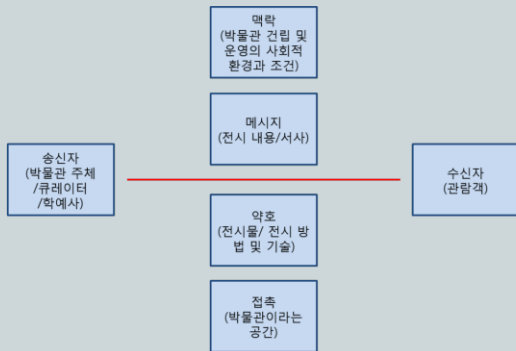
우리가 나누는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 2025년 세종학포럼

2025 세종학포럼은 10월 30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약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는 ‘박물관과 도시 브랜딩(박물관도시 세종의 미래)’을 주제로, 박물관이 도시의 이미지와 일상 경험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발표에서는 박물관의 역할 변화와 함께, 관람객을 ‘참여자’로 확장하는 관점이 제시되었고, 사용자 경험 중심의 문화시설 방향을 ‘리빙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기도 했다. 또한 세종 박물관단지를 뮤지엄 콤플렉스로 바라보며 통합운영, 자원, 연구기능 강화, 대학 연계 등 실행 과제도 함께 정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박물관도시 세종’이 갖춰야 할 운영 방식과 시민 접점, 도시 브랜딩 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했다.



1) 박물관,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 태지호(국립경국대)

박물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 시작: 박물관의 첫 얼굴

- 박물관은 ‘무언가를 모아 가치는 곳’에서 출발했고, 그 기원 자체가 권력과 지식의 저장방식과 맞닿아있다.

✓ 전환점: 시민에게 열린 공공공간

- 루브르 사례처럼 박물관은 ‘소유의 공간’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며, 시민의 문화인프라가 됐다.

✓ 현재의 질문: 관람객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관람을 단순 방문으로 돌지, 의미를 함께 만드는 참여로 확장할지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 모두의 박물관이 되기 위한 전략의 제안

- 유치가 아니라 ‘개발’, 그리고 양방향 소통관람객 수 확대만이 목표가 아니라, 경험을 설계하고 지역과 연결하며 시민을 문화 생산의 동반자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도시의 리빙 플랫폼(Living Platform)으로서의 박물관- 안성희(홍익대)

박물관 단지의 도시디자인적 관점의 가치는
서비스 디자인 거버넌스파트너십(도시 - 기관(박물관) - 시민)과
콘텐츠 서사적 파트너십 (스토리텔링 - 테크놀로지 - 지역의 문화자원)

박물관의 건물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도시의 유연하고 도시디자인은 사람의 경험 중심으로 여러 겹의 옷을 갈아입으며
다양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에 **창의적 경험은 박물관의 건축물이 아닌 도시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박물관과 전시품도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임

시민이 중심 경험을 확장하는
리빙 플랫폼(Living Platform)으로서의 박물관



✓ 질문: 미래 박물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 박물관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은 무엇이며, 세종의 박물관단지는 어떤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가.

✓ 핵심 개념: 도시의 일상을 잇는 리빙 플랫폼

- 박물관은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경험을 이어주는 ‘도시 리빙 플랫폼’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 구현 방식: 점이 아니라 ‘경험 네트워크’

- 개별 기관의 집합을 넘어서, 보행 · 공공공간 · 동선으로 연결되는 체험 네트워크를 만들고, 감각적 경험(걷기-사유-발견)을 강화해 삶과 몰입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

✓ 키워드: 참여형 설계 + 운영(리빙랩) + 스토리텔링/기술

- 시민참여형 설계와 운영모델, 스토리텔링과 기술의 통합 경험이 도시 브랜드로 이어진다.

3) 뮤지엄 콤플렉스를 통한 세종시 도시 브랜딩 성공 전략-박정언(한국유교문화진흥원)

도시와 뮤지엄 콤플렉스, 세종

포용적 미래가치

어린이+ 도시건축 디자인+ 민속+ 디지털+문화유산 국가기록

창의적
시민과 공동체를 육성하는
뮤지엄

도시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뮤지엄

인류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뮤지엄



✓ 문제의식: 뮤지엄이 도시브랜딩을 만든다.

- 박물관은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경험'으로 구현하는 장치이며,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힘이 있다.

✓ 비교 프레임: 클러스터 vs 콤플렉스.

- 세종은 집적(클러스터)보다, 시설 간 연계성과 통합 경험(콤플렉스)에 더 어울리는 조건을 가진다.

✓ 참고 사례: 워싱턴 DC(스미소니언)

- 상징공간과의 결합, 높은 접근성, 주제별 집적을 통해 "통합된 박물관 경험"이 도시 브랜드를 강화했다.

✓ 세종의 도시브랜딩 전략

- 국립박물관단지와 주변 자원의 '한 덩어리 경험' 국립박물관단지와 공원·수변·도시 자원을 엮어 '행정도시'를 '문화·지식 수도'로 확장할 수 있다.

✓ 향후 과제

- 통합안내 체계와 파트너십·재원·성과관리를 묶는 통합 운영체계를 갖춰야 '뮤지엄 콤플렉스'가 한 덩어리 경험으로 작동한다.

라운드테이블



1. 추진 동력과 설득의 언어(이순열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 박물관도시는 정치일정의 파도를 타기 쉬운 만큼, 정치권이 투지할 ‘명확한 비전’과 설득 논리가 필요함

2. 운영 통합과 생활 연계(배은석 교수/한국외대)

- 소속 박물관의 운영 주체·방식의 정합성을 먼저 세우고, 에코뮤지엄처럼 시민의 생활과 연결되는 ‘협력 공간’으로 설계해야함
- 지속가능발전·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 무형유산 중심의 운영정책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음

3. ‘원본’이 만드는 방문 이유(김진형 연구위원/경남연구원)

- 미디어 전시·콘텐츠 제작은 확장장치지만, 관람 동기를 만드는 핵심은 ‘원본을 직접 보는 경험’
- 결국 디지털의 목표도 사람들을 원본으로 이끄는 데 있어야함

4. 행정수도 정체성의 클러스터 전략(성종현 교수/국립경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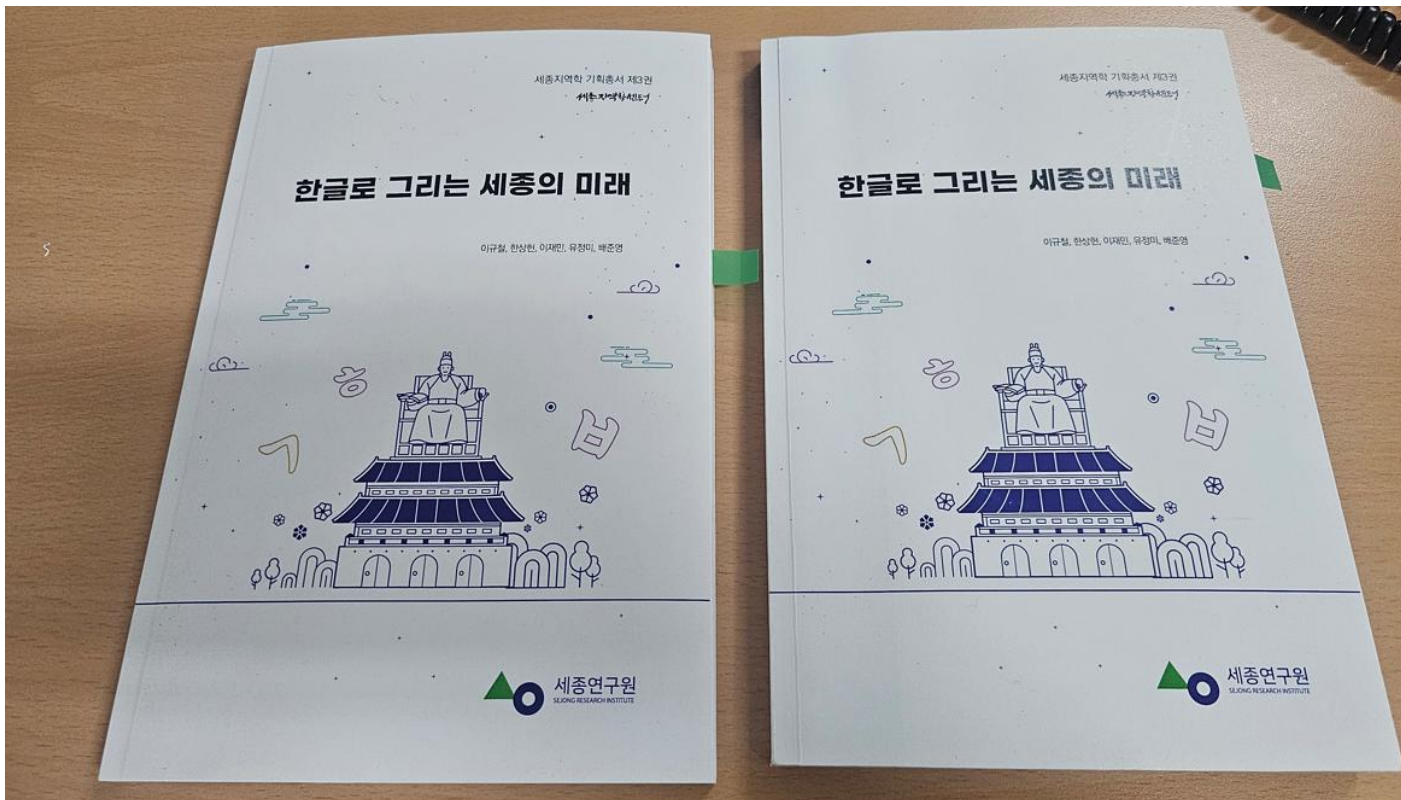
- 행정수도 세종의 이미지를 살려, 정부·행정기관과 연결되는 박물관 클러스터로 기획·운영 주체와 주제를 일정 수준 통합할 필요.

5. 지역활성화와 브랜드 연결(장동우 대표/PAL문화유산센터)

- ICT·미디어·굿즈 등 현대적 도구를 적극 활용해 박물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함
- ‘박물관도시세종’ 브랜딩 또한 지역 활성화 전략과 함께 가야함

총서 vol.3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발간!

세종지역학센터가 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를 펴냈다. 이 책은 “도시가 한글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세종시가 왜 한글을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차분히 정리한다. 내용은 훈민정음의 시대적 맥락부터 ‘추상도시 세종’의 개념, 한글 정책 실천, 도시브랜드 디자인, 한글 문헌 기반 콘텐츠 구상까지 다섯 개의 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본문 사이사이에는 ‘한글로 빛은 지역의 예술’ 코너를 두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담아 ‘읽는 총서’에 ‘보는 경험’을 더했다. 한글을 문자와 역사유산에만 두지 않고, 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소재이자 매체로 확장해 보자는 제안도 책 전반에 흐른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이번 총서가 지역학 연구의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세종 기차역에 스며들 삶의 이야기(2권)〉가 만드는 문화적 물결

한 권의 지역학 총서는 보통 서가에 꽂히며 일을 마칩니다. 그런데 〈세종 기차역에 스며들 삶의 이야기(2권)〉는 달랐습니다. 우리 책 속의 ‘기차역’이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현장은 전시와 희곡, 시각예술, 그리고 점자책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며 더 넓은 독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지역학은 결과물이 아니라 매개라는 것. 한 번 정리된 삶의 기록이 다시 움직일 때, 지역의 문화는 ‘행사’가 아니라 ‘물결’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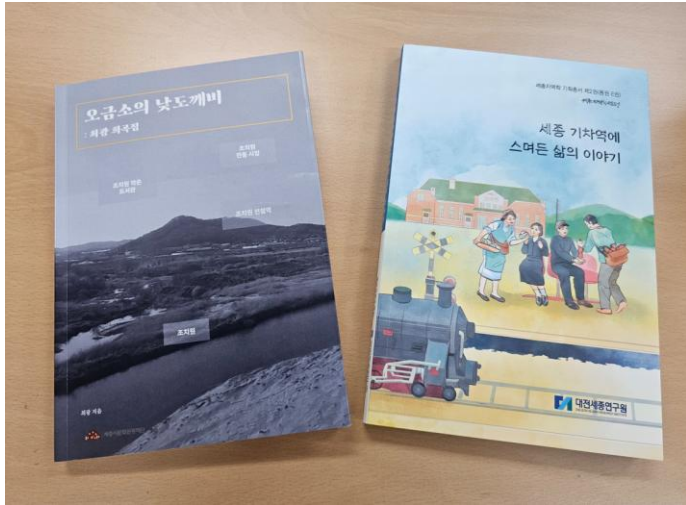
➤ 청년의 시선이 만든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

고려대학교 문화유산과 학생(지도교수:안형기)들이 책의 문제의식을 모티브로 삼아, 조치원역의 시간을 ‘디지털로 걷는’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영상, VR, 디오라마 같은 매체를 빌려 한 사람의 일상을 따라가듯 조치원역의 변화와 의미를 서사로 풀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역의 기록이 ‘학습 자료’를 넘어 ‘창작의 출발점’이 된 순간입니다.



➤ 지역작가의 희곡으로 확장된 세종시 ‘기차역’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광 작가님께서 총서를 바탕으로 희곡을 집필했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한 도시의 역사가 문장으로 정리된 뒤, 다시 무대의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은 기록이 가진 ‘재창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역의 삶이 연구를 통과해 예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세종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점자책 제작으로 이어지는 포용의 확장

세종지역학센터는 세종점자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총서를 점자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기록의 사회적 환원’이 실제 실천되고 있다는 지점이고, 이는 세종의 지역학이 더 많은 시민에게 닿는 통로가 하나 더 생겼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일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조치원문화정원>



<카페 웃고시(소담동)>



문화예술교육공간
<세미퍼블릭(조치원)>

➤ 시각예술가들이 펼친 전시 ‘기차 프로젝트’

다섯 명의 시각예술가(김도영(기획), 최혜원, 김미라, 권하얀, 정웅)들은 책을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현장을 향한 안내서’로 삼아 실제 역과 주변을 답사했고, 그 경험을 회화, 영상, 설치 등 각자의 언어로 재해석해 전시로 선보였습니다. 우리의 총서가 예술가의 감각을 깨우고, 그 감각이 다시 ‘지역의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읽게 만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 일시: 2025.11.29.(화)~12.04.(목) 11:00~17:00

– 장소: 조치원 1927아트센터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MOU

1.세종점자도서관과의 협력: 지역학의 접근성을 넓히다.

- 일시/장소: 2025.11.10.(월) 14:00, 세종연구실 8층 대회의실
- 목적: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지역학 기반 교육·문화 서비스를 확대
- 협력 내용: 지역학 자료의 점자·음성 전환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연구자료·성과 공유, 관련 행사·사업 협력,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 효과: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형식의 확장'으로까지 이어가는 계기

2.세종TP 세종RISE센터와의 협력: 지역학이 인재양성 체계로 연결되다.

- 일시/장소: 2025.11.26., 세종테크노파크 세종RISE센터
- 목적: 세종형 평생교육 전략을 공동 기획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기반을 통해 RISE 체계 강화를 도모
- 협력 내용: 평생교육 전략·데이터 교류, 지역정체성 기반 인재양성 모델 공동 연구,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기반 마련, 홍보·성과 확산 협력 등
- 의의: 지역정체성(인문사회 연구역량)과 정책·교육·현장 연구를 잇는 '공식 연결 통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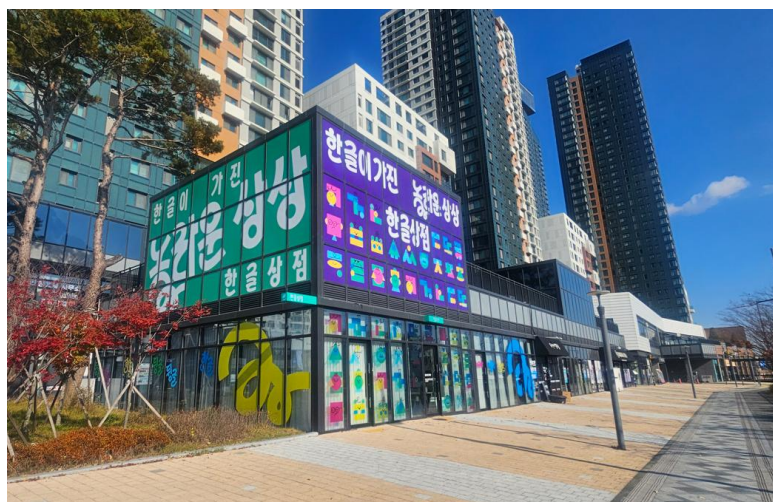
- 한글의 마음을 팝니다, 한글상점

세종지역학센터

한글의 마음을 팝니다, 한글상점

세종의 골목을 걷다 보면, 일부러 마음을 늦추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문 하나를 만나게 된다. 한글상점은 세종시 최초 한글복합 문화공간으로, 한글을 ‘전시’가 아니라 ‘생활’로 꺼내 놓는 작은 발견의 장소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글자가 먼저 눈에 닿는다.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걷는 동안 한글은 설명이 아니라 감각이 되고, 짧은 문장은 기념품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남는다.

- 세종 어울누리로 67 1층
- (화요일~토요일) 12시 ~ 20시 / (공휴일 및 일요일, 월요일) 휴관



공간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한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상과 만나다.

가 구역에서는 문구, 도서, 패션잡화 등 일상에서 손이 자주 가는 물건들로 한글을 가볍게 불러내고, 나 구역에서는 지역 식품과 식기류 같은 ‘한글 식문화’ 제품으로 한글의 곁을 식탁 가까이 가져온다.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글자는 설명이 아니라 감각이 되고, 짧은 문장은 기념품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된다. 한글문화도시라는 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생활로 착지하는 장면이 또렷하다. 알알이 고운 세종은 이번 호에서, 세종의 한글이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숨은 공간을 한 알 건져 올려 소개한다.



↑ 한글상점 위탁 운영 중인
정혜리 대표(리리)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전통의 기록이 오늘을 만나는 순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생생현장)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시시각각’ 전시

세종지역학센터

전통의 기록이 오늘을 만나는 순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세종의 물결너머에서 이번에 건너간 곳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한유진)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자리한 이 기관은 ‘충청 유교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 연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목표로 운영되는 거점형 공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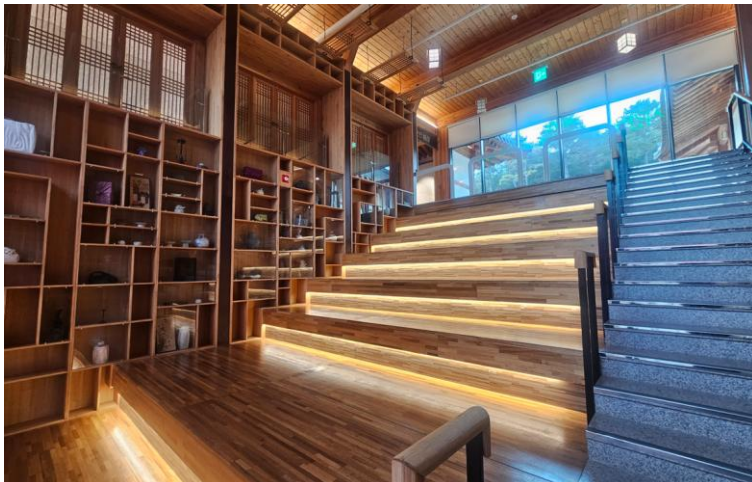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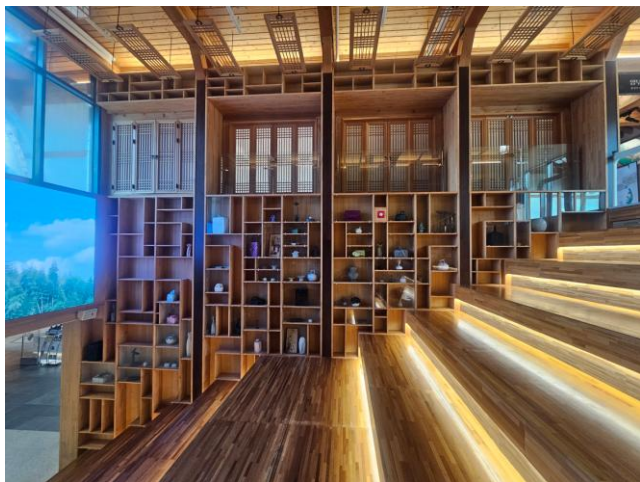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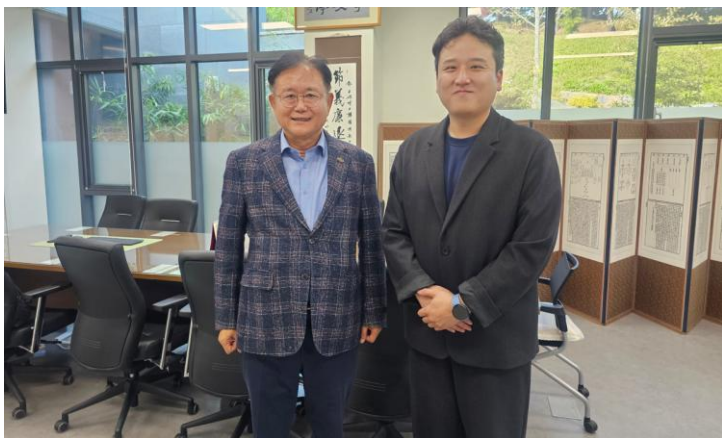
직접 가보면 “연구기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단단함 위에, 관람과 체험이 얹혀 있는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본관 1층은 전시·체험·교육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전시실과 강연·세미나가 가능한 ‘대학당’, 다목적 공간, 야외마당 등이 연결되며 관람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솔비움’ 현판이 붙어있는 라키비움 공간이에요.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유교문화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전시를 함께 경험하게 설계되어, ‘지식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식이 생활로 스며드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보신 전시도 그런 맥락에서, 시간을 “느끼고, 바라보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람객에게 질문을 건네며, 세종의 일상 속 문화 실험을 다른 도시의 공간 실천과 연결해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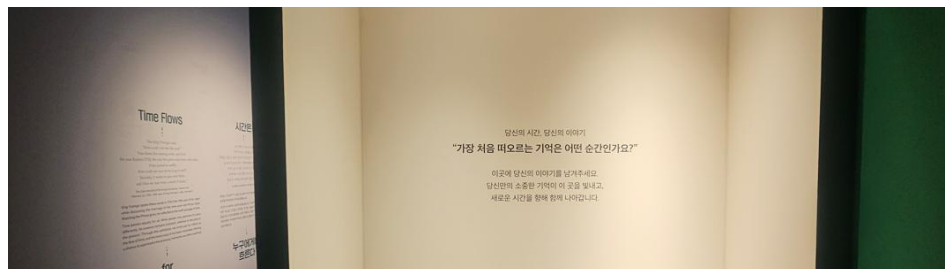


정재근 원장님과!



(생생현장) 한유진 전시 <시시각각>에서 만난 시간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



(전시소개) 더 커넥터 세계관의 확장

2026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융복합특별전시

THE CONNECTOR : Expanding Perspectives

(일시) 2026.02.24.(화)~11.29.(일)

(장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층 기획전시실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 컷>

제6호 (2025년 12월)

발행인 : 권영걸 원장(세종연구원)

기획 · 원고 · 사진 · 편집 : 이재민 센터장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세종지역학센터